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장본인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노린 군사적모의와 대결책들을 계속 벌리고 있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미국, 일본과 화상회의방식으로 제12차 《한미일안보회의》라는것을 열고 그 누구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역내 안정유지방안》과 《안보협력중점방안》 등을 논의하는 추대를 부리었다.

우리 공화국을 모해알상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요구에 정

면도전하는 또 하나의 불순한 모의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여기에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절대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도 쌍방이 이를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는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하지 않는데 대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앞에서는 《평화》와 《대

화》에 대해 골짜기 외우면서 돌아앉아서는 외세의 반공화국고급압살책동에 적극 편승하여 전쟁연습과 첨단 무기개발과 무력증강에 계속 매달리면서 동족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펴하고 있다.

지난 6일 조선서해 최대 열점구역의 공중과 해상에서 공군 및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여놓은 남조선당국이 오는 8월 대규모인 《림팩》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로 결정한것은 그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벌리는 외세

와의 군사적모의와 북침전쟁 연습강행, 무력증강책동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고조시키고 조선반도의 경제 악화와 전쟁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실은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장본인은 누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 외세와의 위험한 군사적모의와 공중에 광분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망명은 그들 스스로의 과일을 부르는 어리석은 것이다.

려정삼

어색한 《중도실용》타령

대해 이례적으로 당지도부를 대표하여 공식 《사과》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이어 보수야당이 광주로 총출동하여 《모지를 참배한다.》, 《사과한다.》 하면서 분주하게 돌아왔다고 한다.

지어는 《보수재건》을 위해 사이비진보학자를 청해다 조언을 듣는 해피마ضح 추태도 부리었다.

한편 《국민통합련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정치적으로 중도실용정당으로 환골탈태할것을 권고한다.》고 하면서 《중도실용》정당으로 전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것을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메리니 우는 시늉이 그러도 하는가.》라며 야우조

소하고있다.

《미래통합당》이 《능력 있고 품격있는 보수》, 《국민을 위한 중도실용보수》로 변신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막다른 정치적위기에 빠진자들이 《탈바꿈》 놀음으로 살길을 열어보려는 한갓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까마귀 분칠한다고 백로 될수 없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시대와 파썸정치, 반인민적악정, 동족대결을 베풀까지 체질화하고있다. 그것을 떠나 순간도 생존할수 없는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다. 자기의 고유한 속성을 버린다면 그것은 벌써 보수정당으로서

의 《미래통합당》이 아닌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자기의 속성을 개변하겠다고 하는것은 승냥이가 풀을 먹겠다고 하는것으로서 도저히 실현가망이 없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미래통합당》의 조상들은 《중도실용정치》와 《천시민정책》을 떠들며 민심을 회유기만하여 권력을 잡고앉고서는 온갖 역적행위를 일삼아왔다. 독사의 앞에서 갇혀난 새끼독사도 역시 독사인것이 조상들의 더러운 피줄을 그대로 이어받은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중도보수》로 포장해도 그 추악한 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는 것이다.

체질변화가 예상조차 불가능한 보수세력들에게 남은 길이 있다면 카멜레온처럼 변색하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종되어 남조선정치무대에서 사라지는것뿐인 것이다.

본시기자 김용철

《죄인》도 만들어내는 파썸검찰

최근 남조선에서 검찰이 이전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을 매장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사실이 폭로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인 《MBC》와 《뉴스라파》가 사담한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을 공개한것으로 하여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기업가는 비망록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때 자기가 80만US\$의 불법정치자금을 한명숙에게 준것은 아니며 당시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소속 친박근혜의원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를 아예 깔아뭉개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검찰이 한명숙의 유죄판 밝혀지면 빠른 시일안에 출소할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갖은 회유와 협박을 가하여 거짓진술을 받아냈으며 한명숙을 법원에 기소한 이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증인인 자기에게 매주 질의

응답편지를 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개가 되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비망록에 적어놓았다.

이 끔찍한 범죄사실이 밝혀지자 남조선 각계에서는 《정치검찰의 최악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검찰이 독재통치를 뒤받침하고 민주개혁세력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선것으로 하여 파썸독재권력의 돌리리,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인민들로부터 증오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어 온것은 잘 알려져있다.

이번에 드러난 이전 《국무총리》를 매장하기 위한 검찰의 비열한 음모책동은 파썸독재의 파수꾼, 보수세당의 시기가 되어 민주개혁인사들을 모해하고 탄압해온 남조선검찰의 잔악무도한 범죄행위를가운데서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알려진것처럼 한명숙은

퇴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당시 검찰은 한명숙이 《국무총리》 시절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US\$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에게 지역형과 벌금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한것으로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렇게 죄자 검찰은 《항소》를 떠들며 양탈을 부리던 나머지 다음해에는 한명숙이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것이 포착》되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하여 한명숙이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지 몇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쓰고 기소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당시는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체선거와 서울시장선거를 앞둔 때였으며 한명숙은 야당을 대표하는 유력

한 서울시장후보로 공인되어 있었다.

민심을 짓밟은 반역정책으로 하여 지방자치체선거와 서울시장선거에서 야당세력에 대해 패할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보수세력들이 음모적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될수 있는 주요 야당인사들을 몰아내려는데 기본대상의 하나가 바로 서울시장후보로 나선 한명숙이었다는것이 당시 각계의 평이다.

결국 검찰수사대상으로 된 한명숙은 서울시장선거에서 낙선되었고 이후에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보수세당의 반역정책실현의 도구로 전락되어 반대파제거, 정적제거를 위해서는 그 어떤 비열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정치검찰의 횡포무도한 몰골이 만천하에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보수세당이 저지르는 천

인공노할 특대형범죄사건들에 대해서는 애써 못 본 척 하고 민주개혁세력들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도 억지로 꾸며내면서 무차별적인 보복의 칼을 들이댄자들이 바로 남조선의 검찰장대들이다.

력과 현실은 남조선검찰이야말로 보수세력들과 한물통, 한쪽속이 되어 정파의 민주, 인권을 교살하는 추악하고 비열한 적폐세력이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남조선사회의 악성종양인 보수세력들과 그와 환악인 검찰장대들을 매장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극적사건이 또다시 재연되게 될것은 자명하다.

남조선 각계가 이번 모략사건을 《검찰의 추악한 범죄주조와 생리를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규탄하면서 검찰적폐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시기자 주광일



광주학살만행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정의당은 어디로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더욱 급격히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리얼미터》를 비롯한 남조선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년초까지만 해도 9%정도에 달하였던 정의당의 지지율은 현재 6%로 떨어졌으며 핵심지지층이었던 20, 30대에서 5%의 지지율을 머무르고있는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것은 진보세력과의 선거판대를 겨부하고 독자로선을 고집함때 있다고 하면서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분열과 반목을 추구한다면 정의당의 존재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신문 《한국경제》는 어느 한 인터넷공동사이트에 《정의당 망하는건 순순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글에는 《얼마전까지 정진을 못 차리고 또다시 민심을 기만하기 위해 당명제정 운동을 운운하며 《변화》에 대하여 읊조리고있으니 변변하거라 양분필구명같은 비열하고 저열한 족속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불것을 보고 발을 펴했다고 괜한 헛수고이다.

《이젠 그 놀음에 신물이 난다. 기관바꾸기 놀음 그만하고 짝 없어져라.》, 이것이 지금 남녘민심의 목소리이다.

김영범

던 20, 30대에서 5%의 지지율을 머무르고있는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것은 진보세력과의 선거판대를 겨부하고 독자로선을 고집함때 있다고 하면서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분열과 반목을 추구한다면 정의당의 존재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신문 《한국경제》는 어느 한 인터넷공동사이트에 《정의당 망하는건 순순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글에는 《얼마전까지 정진을 못 차리고 또다시 민심을 기만하기 위해 당명제정 운동을 운운하며 《변화》에 대하여 읊조리고있으니 변변하거라 양분필구명같은 비열하고 저열한 족속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불것을 보고 발을 펴했다고 괜한 헛수고이다.

《이젠 그 놀음에 신물이 난다. 기관바꾸기 놀음 그만하고 짝 없어져라.》, 이것이 지금 남녘민심의 목소리이다.

김영범

결과 당론이 없이 남의 품에 뜻을 다는 식으로 정치를 하게때문이라고도 평하고 있다.

남조선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다수의 언론이 정의당 위기관인으로 선명성악화, 대안정당으로서의 준비부족, 인물발굴미흡 등을 지목했다.》고 평하였다.

인천대학교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의당이 《공정가치를 중시하는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엔 부적합해 보인다.》며 《정의당이 바뀌지 않으면 4년 내내 어려울것》이라고 하였으며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어느 한 토론회에서 《생기발발한 진보정당에서 났고 최최한 정당으로 전락했다. 새로운 의제와 담론으로 기성정치를 깨우는 역할을 포기하고 기득권정당으로부터 지대할방 받으려는 마음정당이 되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남조선언론들과 정치전문가들은 진보정당은 자기의 고유한 본래와 성격을 살려야 한다는것을 부인할수 없다고 하면서 정의당이 불분명한 《개량화》를 계속 추구하거나 《선명한 진보적가치의 정치를 복원하라》면한다면 지지를하락할 막을수 없다.》고 분석하고있다.

본시기자 배영일

성노예범죄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26일 《위안부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일본군국주의의 세력이 세계도처에서 녀성들을 랑치하여 성노예로 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얼마전 일본의 무성이 당국의 외교정책을 세계에 알리려는 정부분인 《2020년 외교청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의 무성은 독도가 제 땅이라고 또다시 칠면파해 주장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에문제를 대해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것이 사실에 어긋나다고 생억지를 부리었다.

과거죄악을 부정하면서 명토강탈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일본의 《2020년 외교청서》 발간놀음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유린행위이고 저들의 반인륜적죄악에 대한 로골적인 미화분식으로서 낯짝이 있다고 하는 족제비도 울고갈 과거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제 것이라고 생떼쓰는 여기에는 독도문제를 여론화, 국제화하며 이를 구실로 재침야망을 거어이 이루어보려는 더러운 흥심이 깔려있다.

더우기 지난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들여

그러나 아직도 일본이 이에 대해 인정도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고 사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최근 굴욕적인 일본과의 성노예문제 《합의》를 강행한 적폐세력들과 일본우익세력이 성노예문제해

가 청춘을 무참히 유린말살한 야수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 소년상을 철거하라고 호소된것은 일본의 과편치성을 잘 말해주고있다.

왜나라족속들이야말로 인종도 밟고도 모르고 털끝만한 죄의식도 느낄수 모르는 회색의 날강두무리이며 용서 못할 천년속적이다.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갚지 못할 반인륜적범죄를 강행한 일본이 날로 오만방자하게 늘어대는것은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추악한 천일매국적망동과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일본의 재침야망이 걷잡을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 있다.

일본의무성이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명기한 《2020년 외교청서》를 발간한 날 방위상이라는자는 조선반도지도와 피로 일목진 전범기 《육일기》가 빠졌이 결려있는 자기의 사무실을 인

결을 가로막으려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피해자나 국민모두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성노예범죄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시기자

터네에 공개하여 우리 겨레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었다. 남조선 각계가 《고노(일본방위상)가 공개한 조선반도지도는 전쟁을 염두에 둔 공격대상지구략용지도이다.》, 《일본이 조선반도를 다시 침략하겠다는것이다.》며 격분을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피로 일목진 전범기를 방위수장의 사무실에 조선지도와 함께 빼앗이 걸여놓고 재침의 광기를 드러내고있는 일본족속들에게는 추호의 타협도, 한조각의 관용도 있을수 없다.

력사앞에 지닌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의무는 회피한채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만 혈안이 되어 날뛰는 섬나라오랑캐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구천에 사무친 원한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려는 우리 민족의 각오와 의지만 더욱 굳세게 해돋뿐이다.

김광률

주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조선지도와 함께 전범기인 《육일기》를 방에 빼앗이 걸여놓고있는 일본방위상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갚지 못할 반인륜적범죄를 강행한 일본이 날로 오만방자하게 늘어대는것은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추악한 천일매국적망동과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일본의 재침야망이 걷잡을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 있다.

일본의무성이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명기한 《2020년 외교청서》를 발간한 날 방위상이라는자는 조선반도지도와 피로 일목진 전범기 《육일기》가 빠졌이 결려있는 자기의 사무실을 인

피로 일목진 전범기를 방위수장의 사무실에 조선지도와 함께 빼앗이 걸여놓고 재침의 광기를 드러내고있는 일본족속들에게는 추호의 타협도, 한조각의 관용도 있을수 없다.

력사앞에 지닌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의무는 회피한채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만 혈안이 되어 날뛰는 섬나라오랑캐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구천에 사무친 원한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려는 우리 민족의 각오와 의지만 더욱 굳세게 해돋뿐이다.

김광률

의 몸부림》이라고 녀드리질하며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개칭한것이 바로 몇해전의 일이다.

하지만 올해초에는 그것마저도 《미래통합당》으로 개칭을 바꾸어달라 《이제 통합의 큰 배를 타고 희망의 항해에 나선다.》고 요란히 광고하였다.

《조진 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평양인민들의 반일시위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불기는 삽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번져갔으며 민중과 학생,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에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벌어졌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석달동안만도 무려 200여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항쟁에 참가하였으며 그 해 12월까지의 전국각지에서 3 200여회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파쇼 폭압통치하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써지리게 체험한 우리

히나 인물도 그 인물, 집도 그 집인데 기관이 바꾸어달라고 까마귀가 백로가 될수 없는노릇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새로운 기관을 달았지만 보수세력들이 버려놓은것이란 《국회》를 식물 《국회》, 동물 《국회》로 만들고 거리에 튀어나가 삭발, 장외집회와 같은 낯뜨거운 랑장판을 벌려놓는가 하면 국민을 제

태지로 취급하며 너털한 막말들을 쏟아내는 등 하나에서 열까지 천하의 망나니짓 뿐이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의 격분과 증오는 더욱 높아졌으며 결국 차레전기는 폐가 망신한 량반집신세같은 불꽃사나운 처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민심을 기만하기 위해 당명제정 운동을 운운하며 《변화》에 대하여 읊조리고있으니 변변하거라 양분필구명같은 비열하고 저열한 족속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불것을 보고 발을 펴했다고 괜한 헛수고이다.

《이젠 그 놀음에 신물이 난다. 기관바꾸기 놀음 그만하고 짝 없어져라.》, 이것이 지금 남녘민심의 목소리이다.

김영범

《조진 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평양인민들의 반일시위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불기는 삽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번져갔으며 민중과 학생,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에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벌어졌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석달동안만도 무려 200여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항쟁에 참가하였으며 그 해 12월까지의 전국각지에서 3 200여회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파쇼 폭압통치하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써지리게 체험한 우리

민족은 직업과 신앙, 남녀로소의 구별없이 도처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조선독립만세!》를 웨치며 예국의 더운 피를 항쟁의 마당에 아낌없이 향했다.

우리 민족은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사람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

수비대병력까지 봉기탄압에 내몰았다.

그것도 부족하여 일제는 조선주둔 일본군과 재향군인, 일본본토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지어 조선에 있는 일본인거류민들에게까지 살인흉기를 쥐어주면서 봉기를 횡포하게 탄압하였다.

4만 6 900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검거투옥되고 1만 5 900여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7 500여명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일제와 같이 가장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적수공린의 시위참가자들을 무참히 살륙한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반일항쟁에 떨쳐나선 3.1인민봉기참가자들에게 대한 일제의 귀족같은 랑압학살만행은 그들고유의 살인기질과 야만성, 강도정신을 세상에 날날이 드러내보여주었다.

김철성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온 조선땅을 살륙지대로 만들어

피에 주된 일제살인귀들은 반일집회와 시위가 진행되는 곳들마다에서 무차별적인 총칼탄압을 감행하였으며 칼과 도끼, 삽과 참깨창 등 살인흉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봉기참가자들의 목을 자르고 나무에 매달았으며 불에 태워죽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어용학자까지도 《일본헌병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일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평양인민들의 반일시위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불기는 삽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번져갔으며 민중과 학생,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에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벌어졌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석달동안만도 무려 200여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항쟁에 참가하였으며 그 해 12월까지의 전국각지에서 3 200여회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파쇼 폭압통치하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써지리게 체험한 우리

민족은 직업과 신앙, 남녀로소의 구별없이 도처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조선독립만세!》를 웨치며 예국의 더운 피를 항쟁의 마당에 아낌없이 향했다.

우리 민족은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사람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

수비대병력까지 봉기탄압에 내몰았다.

그것도 부족하여 일제는 조선주둔 일본군과 재향군인, 일본본토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지어 조선에 있는 일본인거류민들에게까지 살인흉기를 쥐어주면서 봉기를 횡포하게 탄압하였다.

4만 6 900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검거투옥되고 1만 5 900여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7 500여명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일제와 같이 가장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적수공린의 시위참가자들을 무참히 살륙한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반일항쟁에 떨쳐나선 3.1인민봉기참가자들에게 대한 일제의 귀족같은 랑압학살만행은 그들고유의 살인기질과 야만성, 강도정신을 세상에 날날이 드러내보여주었다.

김철성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평양인민들의 반일시위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불기는 삽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번져갔으며 민중과 학생,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에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벌어졌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석달동안만도 무려 200여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항쟁에 참가하였으며 그 해 12월까지의 전국각지에서 3 200여회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파쇼 폭압통치하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써지리게 체험한 우리

민족은 직업과 신앙, 남녀로소의 구별없이 도처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조선독립만세!》를 웨치며 예국의 더운 피를 항쟁의 마당에 아낌없이 향했다.

우리 민족은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사람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

수비대병력까지 봉기탄압에 내몰았다.

그것도 부족하여 일제는 조선주둔 일본군과 재향군인, 일본본토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지어 조선에 있는 일본인거류민들에게까지 살인흉기를 쥐어주면서 봉기를 횡포하게 탄압하였다.

4만 6 900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검거투옥되고 1만 5 900여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7 500여명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일제와 같이 가장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적수공린의 시위참가자들을 무참히 살륙한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반일항쟁에 떨쳐나선 3.1인민봉기참가자들에게 대한 일제의 귀족같은 랑압학살만행은 그들고유의 살인기질과 야만성, 강도정신을 세상에 날날이 드러내보여주었다.

김철성